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척추
 논문제목 퇴행성 요추 후만증의 시상면 분석 - 골반 지수에 따른 요추전만의 저교정 및 과교정 비교 -
Comparison of Sagittal Balance between Overcorrection versus Undercorrection of Lumbar Lordosis in Lumbar degenerative Kyphosis
 영문제목
 발 표 자 오현석 책임저자 이정희
 저 자 이정희, 김기택, 석경수, 이상훈, 오현석, 김일영, 이상현, 최정규
 기 관 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 : 고령화 사회로 인한 퇴행성 요추 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수술적 치료 시 교정 후의 요추 전만 예측치 계산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퇴행성 요추후만증의 수술적 치료에서 수술 후 교정된 요추전만과 골반 지수로 계산한 요추 전만 예측치(Lee CS formula)의 차이에 따라 수술 전, 수술 후 및 최종 추시 시상면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고령화 사회로 인한 퇴행성 요추 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수술적 치료 시 교정 후의 요추 전만 예측치 계산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퇴행성 요추후만증의 수술적 치료에서 수술 후 교정된 요추전만과 골반 지수로 계산한 요추 전만 예측치(Lee CS formula)의 차이에 따라 수술 전, 수술 후 및 최종 추시 시상면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.

결과 : 1군 및 2군의 요추전만은 술 전 -7° 및 -6° , 술 후 -65° 및 -35° (교정각; 59° 및 30°), 최종 추시 -58° 및 -30° 였다. 천추경사는 술 전 22° 및 18° , 술 후 42° 및 27° , 최종 추시 43° 및 28° 였다. 골반 기울기는 술 전 29° 및 40° , 술 후 9° 및 30° , 최종 추시 9° 및 29° 였다. 시상면 균형은 1군 및 2군에서 각각 술 전 $+115$ mm 및 $+108$ mm에서 술 후 2 mm 및 $+43$ mm로 교정되었고, 골반 지수에 따른 요추전만 예측치보다 과교정된 1군은 최종 추시 $+36$ mm로 시상면 균형이 유지되었으나, 저교정된 2군은 $+86$ mm로 시상면 교정소실 및 불균형이 관찰되었다.

결론 : 퇴행성 요추 후만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로 수술 전 시상면 불균형은 술 후 교정되었으나 골반 지수에 따른 요추전만의 교정 정도가 저교정된 경우 최종 추시에서 시상면 교정소실 및 불균형이 발생되므로, 수술 전 골반 지수에 따른 요추전만의 과교정을 획득할 수 있는 수술 전 계획 및 수술 방법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시상면 불균형, 퇴행성 요추 후만증, 골반 지수, 요추전만